

倭城과 甌城 名稱考

심 봉 근*

〈목 차〉

- I. 머리말
- II. 왜성
- III. 증산과 증성
- IV. 일본근대성의 전말
- V. 맺음말

국문요약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왜군 주도로 국내에 축조한 성곽을 우리는 보통 왜성倭城이라 명칭하고 드물게 증성甌城 또는 증산성甌山城이라고도 한다. 사실 왜성이란 왜의 성이라는 의미로서 일본에서는 당시의 성을 전국성戰國城 또는 근대성近代城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증성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시루와 닮았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라는 정도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부산이라는 지명이 증산에서 유래되었다는 기존의 사실들이 잘 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놀랍게도 증산 또는 증산성이 위치하는 곳이 대부분 왜성이 위치하는 곳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문헌상에 나타나는 왜성과 증성관계 자료를 분석하고 왜성이라는 명칭 사용의 보편성과 증성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였다. 아울러 왜성과 일본 근세성곽의 원류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왜성이란 명칭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왜군 주도로 우리나라 국내에 축조한 성곽에 대해서 왜성倭城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실록 등 조선시대 공식문헌에서 왜성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분되는 것은 동일시기에 일본국내에 일본인이 축조한 성곽

* (재)동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

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성이라 명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왜성이라는 명칭은 조선 조정에서 왜인들 주도로 국내에서 축조한 성이라는 의미에서 주로 사용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은 증성 또는 증산성이라는 명칭이다. 이 명칭은 성의 형태가 시루를 닮았거나 아니면 시루를 닮은 산에 성이 위치하여 붙인 명칭으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문헌상 증산이나 증성이라는 명칭이 임진왜란을 경계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의미를 달리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부산의 대증현, 양산과 거제의 증산과 같이 이전에 기록된 명칭은 대부분 시루산 또는 시루산성과 같이 산의 형태를 보고 명명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자로 풀이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증산이나 증산성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울산증성, 서생포증성, 부산증성, 사천증성, 양산증산성 등은 임진, 정유 양란 때 축조한 왜성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된 듯하다. 증성 또는 증산성이 왜성의 형태를 보고 명칭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지만 필자가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일본에서 성을 시로시로라고 혼독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당시 왜인들이 왜성을 시로시로 또는 오시로おしろ라 부르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로시로를 시루라고 명칭하는 과정에서 한자 ‘甌’으로 표기한 것에 연유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증성은 성성이라는 의미가 되며 마치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역전앞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마지막 왜성의 기원이 되는 일본 근대성곽의 시작 문제이다. 일본 고유의 것으로 설명하는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전국시대 말 일본성곽은 산성에서 평산성으로 입지가 바뀌어 지고 석축, 해자, 토루, 천수각 등 성의 내외 구조에 있어서 다곽식의 새로운 변혁이 나타난다. 성내는 철포 이용이 용이한 보병적 전투기능과 하늘에 맞닿는 오중칠탑의 종교기능 건물 그리고 성주의 거관 등 복합된 특수구조와 기능이 요구되면서 화려하고 장대해 진다. 가장 먼저 축조된 노부나가의 아즈치성은 1576년에 시작하여 1579년에 완공된다. 하비르가 가고시마에 도착한지 20년 후의 일이다. 현재 알려진 아즈치성의 조감도는 유럽지역 15세기-16세기 성곽들과 매우 닮고 있다. 철포, 화약을 비롯한 천주교 등 서양문물의 일본전입 과정에서 근대성곽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왜성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주제어 : 왜성, 증산성, 대증현, 일본근대성곽, 철포, 조총

I. 머리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왜군 주도로 국내에 축조한 성곽을 우리는 보통 왜성倭城이라 명칭하고 드물게 증성甌城 또는 증산성甌山城이라고도 한다. 사실 왜성이란 왜의 성이라는 의미로서 일본에서는 당시의 성을 전국성戰國城 또는 근대성近代城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왜의 성이므로 일본에 있는 성이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반응도 없지 않다. 그리고 증성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시루와 닮았다는 의미로 붙인 것이라는 정도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부산이라는 지명이 증산에서 유래되었다는 기존의 사실들이 잘 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¹⁾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놀랍게도 증산 또는 증산성이 위치하는 곳 대부분이 왜성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문헌상에 나타나는 왜성과 증성 관계 자료를 분석하고 왜성이라는 명칭 사용의 보편성과 증성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왜성의 원류가 되는 일본 근세성곽은 그 기원을 천주교와 함께 유입된 서양문물의 일부 요소라는 사실도 추측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왜성과 증성의 명칭관계는 물론 왜성의 원류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분의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II. 왜성

왜성이라는 용어는 최근 경남의 왜성지²⁾를 비롯해서 왜성,³⁾ 왜성의 연구,⁴⁾ 한국남해안의 왜성,⁵⁾ 한국남해안왜성축성술연구,⁶⁾ 한국의 왜성연구⁷⁾ 등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대부분 용어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중에는 거부감 또는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종 문헌자료에서 왜성이라는 용

1) 심봉근, 『釜山浦와 釜山鎭城의 공간적 위치분석』, 文物研究 제25호, 2014.

2)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경남의 왜성지』, 1961.

3) 倭城址研究會, 『倭城 I』, 1976年度調査報告, 1976.

4) 城郭談話會, 『倭城の研究 I ~ V』, 1979~2002.

5) 심봉근, 『한국 남해안의 왜성』, 文物研究 제4호, 2000.

6) 이형재, 『한국 남해안의 왜성 축성술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7) 나동욱, 『한국 왜성의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2012.

어를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관계자료 중 대표적인 예를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1. 四路兵進圍島山。督軍攻戰。焚燒寨柵。賊勢倍盛。無策可施。董將自晉州督進諸軍。先擊泗川本城之賊。賊見我兵勢。走入大陣。一元縱兵追殺。因圍法叱島。劉將領諸將。自九木亭進順天佛隅。行長已設講廳于綿紬藪下。先使數倭奉獻寶劍一雙于提督。因邀講約。提督許之。行長出大兵。陣倭橋五里之外。自以三千兵進來。提督以劉中軍爲提督威儀。元帥以兵營虞候白翰南。具兵使粧束。各率數百人。徒手入送。議禮畢還歸時。三協合擊。時義智自流山來在倭橋。共設宴具。將至講廳。右協兵在西邊。胡賊不密。先放火箭。喊呼突起。行長等驚駭退走。提督遂放火炮。督軍追擊。左協李芳春以馬兵先遮賊路。外陣賊兵護入二箇。餘賊未及入城者。在途搏戰。凡斬九十八級。天兵被害亦多。大軍因進圍倭城。陳璘董率水兵千餘艘。以李舜臣爲先鋒。由瓦頭猫島。鼓譟颯旗而進。列圍海洋。各船皆以黑三生爲風席。各色旗麾。縱橫其間。所見極壯。方追賊時。三衛軍猶未及。權慄大怒。拿兵使將刑。陪臣止之。時余在前鋒。與主將相失。圍城之後。乃得相遇。⁸⁾

자료2. 劉綎結寨城濠。爲持久之計。令我軍輸入木石。以助其役。賊多張旗幟于城。上連設炮樓於其間。排短寨于堞上。列立葛人於其內。常時放丸。使銳軍不得近城。是夜提督令諸軍。各備五枝炬三柄。俟大陣鳴鑼放火。一時舉火吶喊。若將向懿。滅火還陣。賊亦發喊連炮。火蔓城外。移時乃止。翌日舟師進薄倭城北船滄。出入挑戰。賊兵爭入水中。敢死圍擁。我軍血戰。斬獲居多。潮出乃退。夜夜初昏賊兵持薪散出。徹夜明火于外柵之間⁹⁾

자료1·2는 난중잡록亂中雜錄 무술년戊戌年(1598) 9월조 기사이다. 조명연합군과 왜군의 울산 도산성島山城 전투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 일부이다. 기사 가운데 왜군이 축조한 도산성을 두고 왜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도산성은 학성鶴城 혹은 울산왜성蔚山倭城, 증성甞城으로 현재도 명칭하고 있다.

⁸⁾ 『亂中雜錄』 卷三, 戊戌年 九月 二十日(선조 31년, 1598년)

⁹⁾ 『亂中雜錄』 卷三, 戊戌年 九月 二十一日

자료3. 備邊司啓曰…經變以後, 軍政廢弛, 依上教, 別遣詳知倭城形制者, 馳赴巡察使營下, 道內城子, 雖不能一時改築, 其中尤甚防緊, 而頽壞不修者, 爲先修築, 參以倭城形勢, 刻期畢功待變, 而其他移他境者, 秋成後一一刷還, 守令邊將, 亦令該曹選擇。傳曰, “允”¹⁰⁾

자료4. ○兵曹啓曰: “北道城制, 一依倭城改築事, 承傳矣。被擄人等, 前後出來者, 不爲不多, 而其中前佐郎姜沆、部將孫文彧、務安居武出身丁夢鯤, 久在倭中, 亦必詳知日本城池機械矣。此人, 北兵使軍官稱號下送, 出入諸鎮教誨後, 如有成效, 仍差本道邊將, 以酬其勞何如?” 傳曰: “允”¹¹⁾。

다음 **자료3·4**는 선조실록 기사이다. 비변사에서 북쪽지역(함경도, 평안도) 성곽을 왜성 형제를 참조해서 개축할 것을 선조에게 건의하여 윤허 받은 뒤 병조와 비변사가 축조시기와 축조인력 등을 논의 한 내용이다. 여기에도 왜성 형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 중에 일본의 성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 국내에 위치하는 성은 왜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일본성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5. 上曰: “馬山可以築城乎?” 德馨曰: “小臣不見馬山, 不知形勢矣。若可據險, 則右兵使可以入處。釜山亦有賊營, 鍊兵數千, 堅守倭城, 則可以據險, 但固城、泗川、昆陽、順天等處, 人烟一空, 前面唐浦、蛇梁之間, 虛棄無形, 極爲悶慮。臣往見湖、嶺二南, 則山城虛費人力處甚多, 不得已一道中央, 爲久遠計處, 竝棄之, 非徒人力可惜, 計亦(悞) [誤] 矣。今勢力俱竭, 舟師格軍糧餉, 辦出無路, 則設備於陸地, 勢所不及。如據某處, 以爲定計, 則日計不足, 歲計則有可爲之事矣。但人心已失, 守令雖欲守城, 誰肯從之? 不得已慰勞人心, 然後緩急可與共守, 亂來十年, 民固於百役, 膏血已盡, 命脈僅存。”¹²⁾

다음 **자료5**는 선조실록의 선조와 이덕형李德馨의 대화 기사이다. 남해 안지역 방어용 성곽과 산성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왜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고성, 사천, 순천 등지에 왜성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6. ○備邊司啓曰: “知倭城形止之人, 入送築城事, 前日允下矣。

10) 『宣祖實錄』一百二十七卷 宣祖 三十三年 七月十七日 戊午

11) 『宣祖實錄』一百三十三卷 宣祖 三十三年 七月二十四日 乙丑

12) 『宣祖實錄』一百三十三卷 宣祖 三十四年 正月十七日 丙辰

今方解冰, 所當卽爲入送事, 本道監司狀啓以爲: '本道境接靺鞨, 朝夕待變, 故城無頽壞不修之處, 但慶源、防垣等城, 比他極闊, 其他各堡, 如梁永、造山、阿山等城, 可改者, 亦非一二, 而本道武士及民人, 皆編軍伍, 本番之外, 又有添防, 民役極苦。若又驅之於築城之役, 則外寇未至, 民自內潰, 雖有金城湯池, 誰與守之云云。' 姑令各鎮, 隨力隨改, 期使不煩民力, 而城池繕修, 斯爲得計。知城制之人, 姑勿下送何如?" 傳曰: "下送當否, 更問于監、兵使。¹³⁾

자료7. ○備邊司啓: "竹山山城, 今將修築。經紀之責, 所當專委府使, 而其間不無藉用他邑之力, 督發之際, 亦有守令不得自專之事。此是畿甸防守之地, 元係大將管內之任, 令京畿防禦使李光岳, 竝爲句管, 往來檢飭之意, 下諭宜當。且本邑, 方有鉅役, 且當大路之傍, 雖合兩邑, 而數小官屬, 不堪奔走。本縣寺奴婢, 除出七八口, 令該司, 免其身貢限, 畢役間, 屬于山城, 專委使喚亦當, 敢啓。

" 傳曰: "允。我國城子失制, 山城則雖因山勢築之, 然其制度, 略倣倭制, 須存深慮爲之可也。此意竝諭。且遣相地官, 與李光岳、本官守令, 眼同, 相其形勢, 城門可當處及他幸有相地之事, 遣之之也。¹⁴⁾

다음 자료6·7은 선조가 비변사의 건의를 받아드리고 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산성들이 왜성 형제를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다.

자료8. 邑城 周二千一百九十七尺 .古邑城, 東五里土城周三千二百八尺. 林郎浦城 北四十五里 海邊. 倭城, 右二處倭人所築 ¹⁵⁾

자료9. 竹島倭城 南十里 宣祖壬辰倭人所築 周五百八十尺 外城 周六百十五尺. 馬沙倭城 北四十里 土築 周七百餘尺.¹⁶⁾

자료10. 永登浦鎮 舊設仇未浦置水軍萬戶 仁祖元年移于見乃梁西 三里 英宗二十七年廢 三十二年復設 有倭人所築 石城水軍萬戶一員¹⁷⁾

13) 『宣祖實錄』一百三十三卷 宣祖 三十四年 正月七日 丙午

14) 『宣祖實錄』一百八十二卷 宣祖 三十七年 十二月 二十一日 丙寅

15) 『大東地志』機張 城池

16) 『大東地志』金海 城池

17) 『大東地志』巨濟 鎮堡條

자료11. 熊浦城 倭人所築¹⁸⁾

마지막 자료 8·9·10·11은 대동지지에 실린 기사로서 기장 임랑포성, 거제 영등성, 김해 죽도성, 마사성, 진해 웅포성 등을 왜성이라 표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왜성이라는 명칭은 생소한 용어가 아니라 조선 조정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왜군 주도로 국내에 축조한 성곽에 대해서만 사용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용 시작은 문헌상 자료 1·2에 나타난 선조 31년(1598)부터이며 이후 조선 후기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왜성이라는 용어는 임진, 정유 양란시 우리나라에 일본인 주도로 축조한 성을 의미하며 당시 일본인이 자국내에 축조한 성에 대해서는 일본성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왜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왜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왜구倭寇, 왜성倭城, 왜노倭奴 등의 단어와 함께 일본에 대한 폄하적 의미가 일부 포함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왜성이라는 단어는 임란이후 조선조정과 국민들이 평소 보편적으로 사용한 국내의 일본성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술적 용어로 계속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Ⅲ. 증산(甌山)과 증성(甌城)

증산 또는 증성이라는 용어이다. 임란이후 왜성과 관련된 각종 문헌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증甌이란 시루를 의미하며 시루와 닮은 성을 시루성이라 하며¹⁹⁾ 시루산에 위치하여 증산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증성이 위치하여 증산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임진왜란 이전 기사에서, 그리고 후자는 이후 기사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1. 春正月 以翌宗爲伊滄 昕連爲波珍滄 林權爲阿滄, 二月 築大甌山城, 夏四月 倭人侵東邊²⁰⁾

자료2. (中略) 甌山, 在郡西南十二里 大野中²¹⁾

18) 『大東地志』 熊川 城池條

19) 『萬機要覽』 軍政編四, 關防, 慶尙道, 蔚山. ‘甌城 一名島山. 倭賊築城於此. 其形如甌. 故名’

20) 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一 祇摩尼師今十年

자료3. 甌山城 在縣西十四里 石築周一千二百六十九尺 高十尺
內有 一井 今廢²¹⁾

자료4. 甌山 在縣西四十三里²²⁾

모두 임진왜란 이전 기사이다. **자료1**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로 지마왕 10년 2월에 대증산성을 축조하였다는 내용이다. 당시 산성이 축조된 대증산의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같은 책 지리지에 동래군東萊郡 영현領縣인 동평현東平縣이 경덕왕 이전에는 대증현大甌縣으로 되어 있다.²⁴⁾ 이 기사의 동평현은 현재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에 해당하여, 대증산은 당감동 주변의 산명일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위치하는 증산 曾山의 경우 처음에는 대증산大甌山으로 명칭되었다가 뒷날 증산甌山으로 약칭되었고, 일제시대 다시 지금의 증산曾山으로 바뀌어졌다는 견해가 있다.²⁵⁾ 더욱이 동평현이 조선시대에는 양산군에 일시 편입된 사실도 있어 주목된다. 사실 대증산성의 신라 지마왕 10년이라는 시기성을 감안하면 고고학적으로 석성보다는 토성이 유행한 시기이므로 부산의 당감동 주변과 양산 물금읍 증산지역의 토성지 잔존여부가 지명고증을 위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자료2**에 보이는 것과 같이 현재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증산에 임진왜란 때 축조한 왜성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뒷장에서 다시 논의 되겠지만 장차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자료3·4는 전기한 양산과 같이 동국여지승람 부여현 고적조와 거제현 산천조에 나타나는 증산 또는 증산성에 관한 기사이다. 주지하다시피 동국여지승람은 임진왜란 이전에 편찬된 자료여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왜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순수한 우리말의 시루산 또는 시루산성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양산 증산성을 제외하면 모양이 시루처럼 오뚝하게 생긴 산이나 그 정상이나 기슭에 성곽이 위치하여 붙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부터 설명하는 임진왜란 이후에 편찬되거나 작성된 문헌에서는 대부분 왜성을 증성 또는 증산성으로 별칭하고 있다.

21) 『東國輿地勝覽』, 卷二十二 梁山郡 山川.

22) 『東國輿地勝覽』, 卷 十八 扶餘縣 古跡,

23) 『東國輿地勝覽』, 卷 三十二 巨濟縣 山川,

24) 『三國史記』, 卷三十四 地理志 新羅 東萊.,

25) 金鐘權, 『譯完 三國史記』卷一 新羅本紀 祇摩尼師今 十年 2월 기사 번역문에 大甌山(甌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先進文化社, 1960, 14쪽. 그리고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梁山勿禁黃山岨』에서도 현재의 曾山리는 大甌山에서 甌山으로 그리고 일제시대에 현재의 명칭인 曾山리로 바뀐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2012, 23쪽.

자료5. 晴。留釜山。午與上使從事。上釜山**甑城**登砲樓。海門通闊。漁舟點點。有嶠遠遠露出於絕影島之外。問諸土人。則云是對馬島。清明之日。入於眺望者如是分明云²⁶⁾

자료6. 病中未赴兩使**甑城**之遊 卽次秋潭誇示之韻²⁷⁾

자료5는 동사록 기사로서 “맑음, 부산에서 머물렀다. 낮에 상사·종사와 함께 부산 **증성**의 포루에 오르니 해문海門은 넓게 통하고, 어주魚舟는 점점이 떠 있다. 절영도 밖에 아물아물 보이는 산이 있으므로, 그 지방 사람에게 물으니, “이는 대마도로, 청명한 날에는 이같이 분명히 보입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부산왜성을 부산증성이라 표기하고 있다.

자료6은 부상록에 실린 내용으로 “병중에 정사·부사의 **증성놀이**에 가지 못하고 추담이 자랑하여 지어준 시에 곧 차운함, 이라 하여 부산왜성을 역시 증성이라 하고 있다.

자료7. 聖周之山西走七八里，一支稍北出斗起爲巘曰**甑城**，以其形名。山上舊有詩樓，故亦曰詩樓城。方言呼甑爲詩樓，二者固無辨。然爲山名均不雅，且城之稱無所據，人以是病之。山下宅曠勢阻，遠近峯巒溪澗，咸拱揖環抱于此，同表兄成上舍靈一氏過而樂之，築精舍數椽。仍山名，存其讀而易其字，扁曰實佑成齋，著己姓以標之也。既而屬余記，三反而益勤。²⁸⁾

자료7은 “성주산 산줄기가 서쪽으로 7, 8리를 달리다가 그 가지 하나가 조금 북쪽으로 갈라져서 우뚝 치솟아 봉우리를 이루었는데, 이름을 ‘시루성’이라 하니 그 모양을 따서 산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런데 산 위에 옛날 시루詩樓가 있었다 하여 또한 ‘시루성’ 이라고도 한다. 방언에서 ‘甑’을 ‘詩樓’라고 하니, 둘 중에 어느 쪽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산 이름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모두 전야典雅하지 못하고, 또 이를 ‘城’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거를 찾을 수가 없으

²⁶⁾ 『東槎錄』：姜弘重의 手記로 인조 2년(1624) 8월 20일부터 다음해 3월 26일까지 기록으로 인조 2년9월 20일(신미)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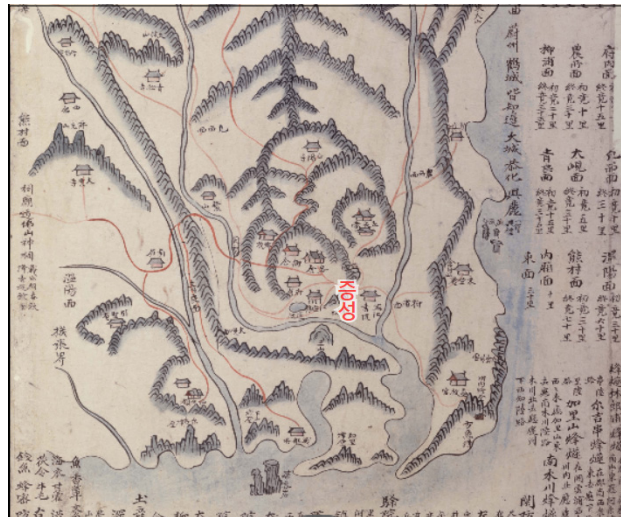
²⁷⁾ 『扶桑錄』, 扶桑日錄, 을미년(1655년) 4월 21일 기사이다. 종사관 南龍翼이 효종 6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개월 사이에 일본에 파견될 때 기록으로, 을미년은 효종 6년이다. 이 시는 효종 6년 4월 남용익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부산에 도착하여 증산에서 모인 놀이에 가지 못하고 지었다.

²⁸⁾ 『修堂集』 卷六 實佑成齋記

로, 사람들은 이것을 병통으로 여겨 왔다. 산 밑은 자리가 넓으면서도 지세가 막혔으며 원근의 산봉우리와 골짜기의 물이 모두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데, 표형表兄인 상사上舍 성영일成靈一 씨가 이곳을 지나다가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다 정사 몇 칸을 지었다. 그리고 산 이름을 따라서 그 독음讀音은 그대로 둔 채 글자만 바꾸어서 실우성재實佑成齋 라고 편액을 걸었으니, 자신의 성姓을 드러내어서 이를 표출한 것이다. 그리고는 나에게 이에 대한 재기齋記를 부탁하여 왔는데, 세 번이나 사양하였으나 더욱 청이 간절하였다.” 라고 하여 시루성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료8. 永川郡澤水赤如血，蔚山飯城前野、慶州城內外，蟾蛙遍野往來，不知其數。 河陽縣門前大野，蚯蚓遍地，不見地色，一日而止。²⁹⁾

자료8은 현종실록 기사인데 “영천군의 못물이 붉기가 피 빛과 같았고, 울산의 증성 앞들과 경주성 안팎에 두꺼비와 개구리가 들판을 뒤덮고 오갔는데 그 숫자를 알 수 없었으며, 하양현의 문 앞 큰 들판에 지렁이가 땅을 뒤덮어 땅 색깔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루 뒤에 없어졌다” 하고 있다. 이 기사에도 울산왜성을 울산증성이라 표기하고 있다.



도 1. 『해동지도』, 울산부

²⁹⁾ 『顯宗實錄』 卷十 顯宗六年 三月 丙申(10일)

자료9. 兵營城 石築。周九千三百十六尺。太宗戊子。合屬於右道昌原府合浦內廂。世宗丙午。左道兵營復立。兼判本府事。宣祖甲午。別設營於本府內廂。 **甑城** 一名島山。倭賊築城於此。其形如甑。故名。外甑城 在西生鎮。亦倭所築。³⁰⁾

자료9는 만기요람에 실린 울산에 위치했던 병영성에 관한 내용이다. 석축. 둘레 9,316척. 태종 8년 무자(1408년)에 우도의 창원부 합포내상에 합쳤다가, 세종 8년 병오(1426년)에 좌도의 병영을 다시 설립하여 판경주부사를 겸임케 하였다. 선조 27년 갑오(1594년)에 따로 병영을 본부내상에 설치하였다. 증성**甑城** 일명 도산성이라고도 한다. 왜적이 여기에 성을 쌓았는데 모양이 시루와 같다 하여 시루성이라 하였다. 바깥 시루성. 서생진에 있으며, 역시 왜적이 쌓은 것이라고 하여, 울산왜성과 서생포왜성을 증성이라 표기하고 있다.



도 2 『해동지도』 동래부

자료10. 三千浦堡 南二十里。自晉州移于通陽浦，成宗十九年築城，置權管。後又移于固城縣。宣祖丁酉倭石曼子據於此，與蔚山之島山順天之倭橋稱爲三窟。堡城今稱**倭甑城**。³¹⁾

자료10은 삼천포보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남으로 20리에 있으며 진주로부터 통양포에 옮겼다. 성종 19년에 성을 쌓고 권관을 두었는데 후에 고성으로 옮겼다.

30) 『萬機要覽』, 軍政編四, 關防, 慶尙道, 蔚山.

31) 『大東地志』, 慶尙道, 泗川縣, 鎮堡

선조 정유왜란에 석만자가 이곳을 근거로 일어났다. 울산 도산과 순천 왜교³²⁾와 더불어 삼굴이라 칭한다. 이 보에 있는 성을 왜증성이라 칭한다고 하여 사천왜성을 왜증성이라 하고 있다.

자료11. 凡川甌山城 在釜山西三里 倭人所築 今廢. 甌山城 在府東一里 壬亂倭人所築 今廢.³³⁾

자료11은 부산왜성과 동래왜성을 소개한 내용이다. 여기서도 왜성을 증산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범천증산성이 부산의 서쪽 3리에 있고, 증산성은 부의 동쪽 1리에 있다는 부분이다. 범천증산성이 좌천동 뒷산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감안하면 그 동쪽 3리 지점의 부산은 자연히 현재의 자성대공원이 된다.³⁴⁾ 그리고 부의 1리 지점에 있는 증산성은 안락동 뒷산의 동래왜성이다. 이 경우 부산이 증산에서 유래되었다는 기존의 설명은 증산성이 같은 자료에 2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혼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증산성이라는 단어가 임진왜란 이후 축조된 왜성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후대에 편찬된 대동지지나 해동역사 등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분포하는 왜성을 증성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연려실기술에는 함경도 경성鏡城³⁵⁾과 단천端川³⁶⁾에 증산성과 증산폐보가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지금까지 소개된 각종 문헌자료를 우선 간략히 정리하면 16세기 말엽 왜성 축조의 배경이 되는 임진왜란을 경계로 그 이전 시기와 이후시기로 나누어 설명 가능하다.

먼저 삼국사기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과 같이 임진왜란 이전에 편찬된 문헌자료에 나타난 대증산성이나 증산성, 증산은 성이 위치한 장소와 성곽의 형태를 두고 붙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자료 1·4**는 현재 위치나 성곽유무 파악이 어려워서 동일 예로 취급할 수도 없다. 다만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왜성과는 우선 시기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자료 2·4의 경우 증산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나 **자료2**의 양산시 물금리 증산의 경우는 그 정상부를 중심

32) 왜교를 예교(曳橋)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있는 돌로 만든 성이다. 정유왜란 때 小西行長이 호남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 겸 최후 방어기지로 삼기 위하여 쌓은 성으로, 일본인들은 순천성이라 부르고 우리 측에서는 예교, 順天倭城 혹은 倭橋라고 부른다.

33) 『東萊府誌』 卷十八. 城郭

34) 여기에 대해서는 후대의 기록이지만 1884년 부산해관에 근무하던 민건호가 작성한 『海隱日錄』에 ‘…戊此鎮設此鎮於子城臺下 子城臺即釜山 釜山即如釜象 故仍名也’ 라고 하여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35) 『燃藜室記述』 별집 권17, 邊圉典故, 廢山城, 咸鏡道, 鏡城

36) 『燃藜室記述』 별집 권17, 邊圉典故, 鎮堡, 廢鎮堡附, 咸鏡道, 端川.

으로 그 기슭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 때 축조된 왜성이 분포하고 있어 증산성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자료4**의 경우 증산을 소개하고 있으나 증산성을 소개한 것은 물론 아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의 기사는 왜성과는 무관한 순수한 산명에서 유래한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임진왜란 이후의 기사이다. **자료5와 6**은 17세기 전반에 작성된 음운인데 여기서는 부산왜성을 증성이라 표기하고 있다. 좌천동 뒷산 또는 자성대부분의 부산왜성을 말하고 있는데 주변 경관을 고려하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왜성을 증성으로 표기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흥미 있는 것은 **자료7**이다. 개인 문장이어서 진의 파악이 어렵지만 산의 지맥이 우뚝하게 독립해서 위치하는 것을 보고 붙인 명칭인지, 아니면 옛날 산위에 시루詩樓가 있었던 것에 연유된 것인지 자세하지 않다 하고 있다. 현지 사정에 대한 것이 어두운 것이 사실이지만 재기문齋記文 중에 ‘이를 성이라고 하는 전거도 없어서’라는 구절을 참고하면 일반적으로 고개를 재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시루고개를 한자로 증성甌城이라 표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특히 기문에 성곽에 대한 정보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해둔다. 또 **자료8과 9**는 모두 울산왜성과 서생포왜성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에도 모두 증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10**은 삼천포보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순천왜성, 울산왜성, 사천왜성을 왜증성 또는 왜고, 삼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자료11**은 부산왜성과 동래왜성의 소개부분이다. 이 자료는 부산의 위치를 정확히 고증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함경도 경성과 단천에 있는 증성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지만 위치상 왜성이 분포할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전의 동국여지승람 관방조³⁷⁾와 고적조³⁸⁾에도 성곽이 나타나고 있어서 왜성과는 관계없는 앞선 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임진왜란 이전의 증산 또는 증산성은 산의 형태에서 유래된 것이 대부분이고, 이후의 것은 왜성의 별칭으로 증산 또는 증산성이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된다, 별칭의 이유는 형태가 시루처럼 생겼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필자는 별고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에서 성을

37) 『東國輿地勝覽』 卷四十九 端川郡 關防조에 “甌山堡 在郡西 一百九十里 今上王二十三年 置權管”이라고 있다.

38) 『東國輿地勝覽』 卷五十 鏡城都護府 古蹟조에 “甌山 在府南八十七里 土築 周一千二百七十五尺 內有二池 有倉基”라 하고 있다.

시로しろ라고 혼독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당시 왜인들이 왜성을 시로しろ 또는 오시로おしろ라 발음하는 것에 주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로しろ를 시루로 잘못 연상하여 평소 사용되는 과정에서 한자 ‘甗’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³⁹⁾

IV. 일본근대성의 전말

1. 서양문물의 동점東漸

1) 조총鳥銃

승자총통勝字銃筒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대표적 소총小銃이었다. 임란 직전인 1589년 일본 통신사로 파견됐던 황윤길 등이 귀국길에 대마도주로부터 철폐鐵砲, 즉 조총鳥銃 2정을 선물로 받아 왔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조선에서는 고려 말 이후 활발하게 화기火器를 개발, 북변北邊 오랑캐와 서남해안에 자주 출몰하는 왜구倭寇를 제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선보다 약 2세기 늦게 화기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철폐를 급속도로 발전시켜 을묘왜변乙卯倭變에서 조선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하였다.

조선의 승자총통은 점화방법이 지화식指火式이었으나 일본의 조총은 화승식火繩式이었다. 조총의 명중률은 승자총통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고 한다.

“나는 새도 능히 맞힐 수 있다”는 의미에서 「鳥銃」이라 명칭되었고 선조는 “천하의 신기神器”라고 경탄하였으며 이순신李舜臣 장군은 조총을 승자총통을 압도하는 화기로 인식했다.

한편 일본은 무로마치室町시대 아시카가요시미쯔足利義滿 막부가 1548년 영파寧波에 견명선遣明船(正使 策彦周良)을 보낸 것이 마지막으로 중국과는 공식적인 무역거래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이를 대신해서 일본 서남해안에서 활동하던 왜구들의 물자약탈과 중계무역 등 해적활동을 하게 된다. 1498년 포르투갈선의 인도 도착을 시작으로 이를 기점으로 동남아 진출을 도모하면서 인도, 말레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대항해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영파부근의 쌍서항雙嶼港을 해상밀무역센터로 삼은 포르투갈인들은 왕직

³⁹⁾ 심봉근 『釜山浦와 釜山鎭城의 공간적 위치분석』, 文物研究 제25호, 2014.

王直을 대표로, 왜구들과 함께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일대에서 해적활동과 밀무역역을 일삼게 된다. 일본의 경우 석견은산石見銀山 은의 대량생산은 중국과 포르투갈인의 인기 수출품이 되었고 수입품은 초산硝酸과 연鉛을 비롯해서 회승총, 화약, 향로, 중국산생사 견직물, 설탕, 약품 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초산과 연은 일본산 유행과 함께 조총의 화약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543년 왕직의 중국선에 동승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포르투갈 사람이 큐슈九州 남방 다네가시마種子島에 도착했다. 유럽 사람이 일본에 도착한 최초의 일이다. 다네가시마 도주島主 다네가시마 도키타기는 포르투갈 사람으로부터 회승총을 구입, 철포와 화약 사용법과 제조법을 가신들에게 교습토록 하였다.⁴⁰⁾ 이것이 확산되어 1550년에는 교토京都인근을 비롯한 전국 봉건영주들 전쟁에서 철포의 사용 소문이 돌았다. 사카이堺, 네고로 등 여러 곳에서 철포가 대량 생산되었다. 철포는 다이묘大名(영주)들이 갖고 싶어 하는 신병기였다. 특히 1557년 포르투갈인이 마카오에 무역거점을 확보한 뒤 큐슈 여러 항구에 무역선을 보냈다. 1562년 구메다久米田 전투에서 대량의 소총이 사용되었고 나가시노長篠전투에서 오다노부나기織田信長 연합군은 3000명의 소총부대를 동원해 1만5000명이나 되는 다케다武田 신켄軍에 대승을 거두었다. 소총의 등장은 전국戰國시대의 전쟁 방식 기병전에서 보병전으로 바뀌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30만 자루의 소총이 만들어졌다.

철포 제작에는 총신銃身이 화력火力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과 초석硝石에서 화약을 만들어 내는 제작기술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일본은 철이 많았고 단야법鍛冶法도 발달해 있었다. 철포 제조 장인匠人は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하나의 번藩 또는 몇 개의 번 단위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제철 기술 못지않게 새로운 문물에 대한 일본인의 호기심, 그리고 기술을 곧바로 익혀 자기 것으로 소화 흡수하는 능력이다. 지금도 구니모토國友에는 옛 단야공鍛冶工의 후예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동네가 남아 있다.⁴¹⁾

2) 천주교

1549년 가고시마鹿兒島에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도착한다. 원래 인도에서 기독교 포교의 사명을 갖고 아시아에 온 예수회 창립자 중 한사람이었다. 그는 향로산지로 알려진 모르츠카 제도諸島를 둘러본 다음(1546-47) 일본에 갈 결심

40) 中島樂章, 『大航海時代のなかの 信長・秀吉・家康』, 『大航海時代の日本美術』九州國立博物館 桃山展 圖錄, 2017.

41) 角山榮 『堺と南蠻貿易』, 『南蠻』堺市博物館, 2003.

을 하게 된다. 향료 수집을 위해 본국에서 가져온 모직물은 동남아인에게는 무용이었고, 대신 은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은이 대량 생산된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비에르는 중국 밀무역선을 타고 현지에서 사권 가고시마 출신 야지로ヤジロ의 안내로 일본에 도착한 것이다. 하비에르는 이듬해인 1550년 가을 나가사키長崎현 히라도平戸를 거쳐서 교토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포교활동을 펼쳤다. 그는 1551년 인도로 귀환하였다가 중국포교를 목적으로 1552년 광동성 서남근해 상천도上川島까지 갔으나 명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서거했다. 아마 포교와 금은 수집을 위해서는 중국산 생사와 견직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552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무로마치 막부로부터 포교를 승인받은 이후 1570년 경, 현재의 나가사키 현에 해당하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비에르가 히라도에 도착한지 20년 만이었다. 이후 천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다노부나기織田信長の 원조로 천주교는 빠르게 전파되었다. 즉, 1569년 루이스 푸로이스 신부의 교토 거주 허락을 비롯해서 1576년 교토 남만사 건축허가, 1581년 아즈치성하에 세미나리오(신학교) 건립 허가 등 기독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158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정권을 잡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1587년 기독교에 대한 금교령을 내려 교회시설을 몰수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였다.⁴²⁾ 1596년 11월 예수회 바오로 미키 수사를 포함한 24명이 금교령을 어긴 죄로 체포되어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끌려갔다. 1597년 1월, 교토에서 이들을 따라온 2명을 포함하여 26명이 나가사키의 니시자카에서 순교하였다. 포르투갈은 카톨릭과 당시 발달된 여러 서양문물을 일본에 전하면서 무역을 했다. 따라서 에도시대江戶時代(1603-1867) 초기에는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인 특유의 노력으로 16세기 중반 이후 100여년간 일본에는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 활발해진다. 하지만 점점 기독교가 대단한 세력으로 확산되어 가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위기감을 느끼고 17세기 중반부터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쇄국정책을 편다.⁴³⁾

2. 왜성축조의 여명

포르투갈인의 1543년 다네가시마 첩포 전래와 1549년 하비르신부의 가고

⁴²⁾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시대一向宗과 같이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면 제압이 불가하다는 점과 마카오와 나가사키 무역권 장악을 위해서였다. 포르투갈인이 일본인을 노예로 매매한다는 사실과 스페인이 영토확장을 위해 선교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⁴³⁾ 이에야스는 기독교가 히데요시 가문과 밀착되고, 스페인령 필리핀의 기독교인 군사력 위협, 예수회로 인한 일본과 중국 간 중계무역 영향력 저하 등이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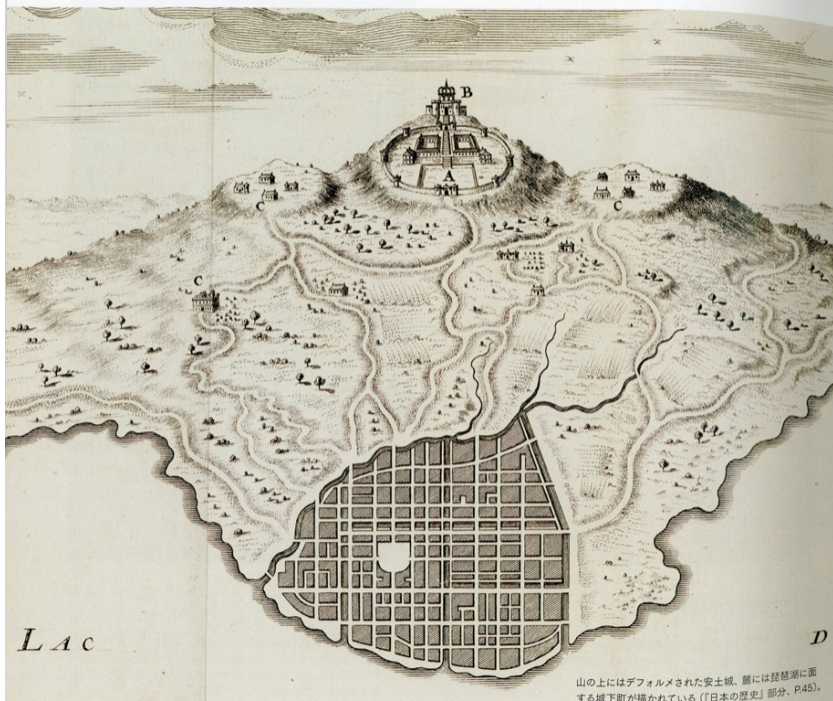
도 3. <남만병풍>, 16-17세기, 지본금지착색, 六曲一雙, 남만 문화관

시마 도착은 일본으로서는 천주교와 서양문물을 처음 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에도시대까지 다종다양한 문물이 교류되었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철포와 화약이다. 철포는 기병전에서 보병전으로 전투방식을 바꿀 정도로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보병 전투를 위한 성곽이 종래의 산성으로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포를 사용하는 보병에게 알맞은 성곽 축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철포의 능률적 사용을 위한 성곽의 축조는 철포 제작국의 기술도입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어쩌면 철포, 화약, 성곽이 Set가 되어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화약제조를 위한 초석과 연을 포루투갈 상인의 수입에 의존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일본에 파견된 신부들은 종교학뿐만 아니라 군사학에도 뛰어난 기능을 가진 기사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곽축조에 신부들의 자문 역할이 지대하였을 것이 예상된다. 그들은 오다노부나가 막부로 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선교와 무역활동에 큰 성과를 올렸다. 1568년 일항중一向宗을 탄압하는 대신 1576년 교토에 남만사南蠻寺 건립을 허가하고 1581년 아즈치성 아래에 예수회 수도원 건립을 허가하는가 하면 1582년 일본 유럽사절단을 보내면서 교황청 선물로 아즈치성⁴⁴⁾을 그린 병풍이 포함되는 등 기독교 신부들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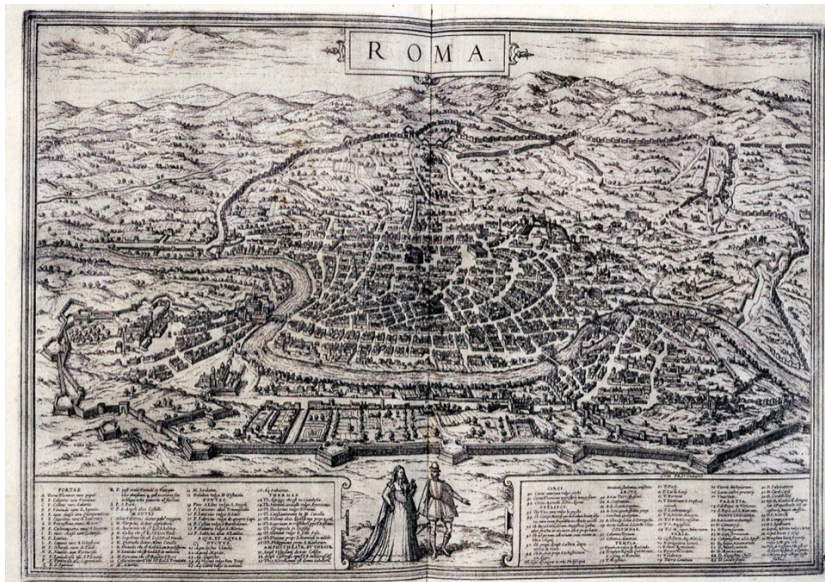
그리고 세스페데스 신부가 고니시유키나가小西行長을 따라 웅천왜성에서 3년간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선교활동은 물론 주변의 왜성축조에도 자문 역할이

44) 아즈치安土城은 1576에서 1579년 사이에 축조되었으며 성내에는 五重七塔이 있었다고 한다.

45) 織田信長은 1582년 2월20일 九州 有馬晴信, 大友宗麟, 大村純忠의 주선으로 10대 전반 청소년으로 구성된 유럽사절단을 파견한다. 正使에 伊東マンソ(1570-1612), 千千和ミゲル(1569-?), 副使에 原マルチノ(1568-1629), 中浦ジュリアン(1570-168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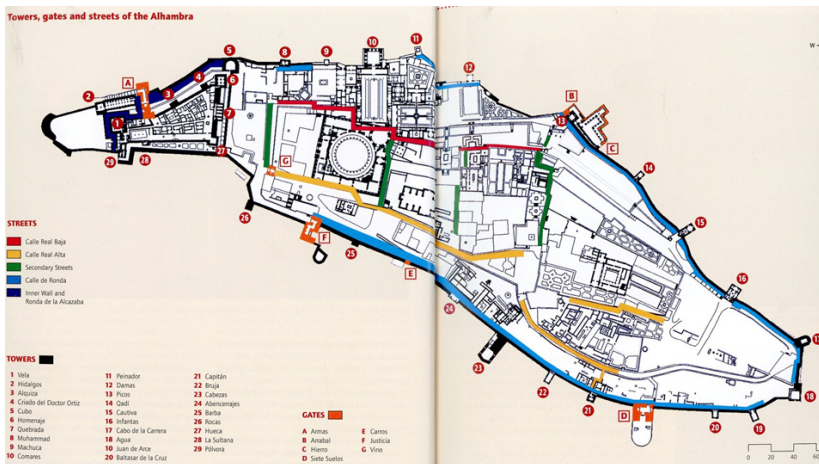
도 4. 아즈치성安土城 조감도



도 5. 로마시 조감도



도 6. 코토르성 성벽 및 해자



도 7. 알람브라성 배치도

충분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편 왜성의 고고학적 특징 가운데 진출입이 용이한 수로변에 위치한 구릉과 야산 정상부를 포함한 그 말단 평지를 성내부로 삼는 입지, 곡륜과 본성, 천수각 등을 갖춘 다곽식 구조, 외곽 해자. 경사각 성벽, 자연 석 또는 가공석을 이용한 허튼층(바른층)쌓기 등이 우리성곽과는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중해연안을 비롯한 서양 성곽들이 치성, 각루, 해자, 총안, 여장, 축조수법 등에서 우리나라 성곽과 유사점이 인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특징은 세계 성곽들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성의 특징은 서양 성곽과는 유사성이 매우 많다.

특히 몬테네그로의 해안에서 야산 정상부에 걸쳐 축조한 코토르Cotorro성⁴⁶⁾은 입지와 해자 뿐만 아니라 기단부 경사각도, 성석크기와 바른층쌓기, 치성배치, 천수각과 동일 높이의 종탑건립, 성벽내부에 배치된 다곽식 건물 등 왜성의 특징과는 유사함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Granada's, Albambra성⁴⁷⁾ 톨레도Toledo성⁴⁸⁾은 16세기 전후에 축조된 것으로 다곽식 구조와 평면 형태 역시 죽도왜성⁴⁹⁾과도 매우 유사함을 감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정건구사절天正遣歐使節의 병풍회屏風繪(아즈치성)⁵⁰⁾, 나고야名護屋성도병풍의 조감도⁵¹⁾나 평면도는 천정건구사절이 이태리에서 받아들인 세계도시지도 중 로마시의 조감도⁵²⁾와도 많이 닮아 있다 그리고 일본 국내의 구마모도熊本성이나 나고야名古屋성 등 대명들의 성곽 평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확인된다. 더욱이 천정건구사절의 교황청 선물 가운데 아즈치성도가 포함된 것은 1579년 아즈치성 낙성을 감안하면 사절을 포함해서 교황청 소속신부들의 일본 국내의 포교활동은 물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과시한 결과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아즈치성은 노부나가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서양신부들의 자문을 받아 서양식으로 일본 최초로 축조한 서양식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본 근대성이 유럽신부들의 자문에 의해 축조되고 왜성과 시작을 같이 한다면 왜성 축조 배경에도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전래된 첼포나 천주교와 같은 서양문물의 유입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6) 아드리 해의 복잡한Cotorro만 깊숙이 자리잡은 아름다운 항구도시. 로부첸산 기슭에서부터 바다까지 이어진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성벽 안 구시가지에는 가장 번영했던 12세기-15세기 무렵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성벽, 검은 산, 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풍경은 동화속의 한 장면과 같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47) 우경화 번역,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스페인, 2015.

48) 김준환 편역, 『톨레도-마드리드』, 스페인, 2013.

49) 동아대학교박물관, 『강서죽도성지』, 고적조사보고서 제42책, 2006.

50)九州國立博物館, 『大航海時代の日本美術』桃山展 圖録』, 2017, 45쪽.

51)九州國立博物館, 앞의 책, 2017, 106쪽.

52)九州國立博物館, 앞의 책, 2017, 49쪽.

IV. 끝맺는 말

지금까지 소개된 자료를 종합해서 끝맺는 말에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왜성이란 명칭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왜군 주도로 우리나라 국내에 축조한 성곽을 왜성倭城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조선실록 등 조선시대 공식문헌에서 왜성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분되는 것은 동일시기에 일본국내에 일본인이 축조한 성곽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성이라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왜성이라는 명칭은 조선 조정에서 왜인들 주도로 국내에서 축조한 성이라는 의미에서 주로 사용한 단어로 정의되며 조선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학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증성 또는 증산성이라는 명칭이다. 이 명칭은 성의 형태가 시루를 닮았거나 아니면 시루를 닮은 산에 성이 위치하여 붙인 명칭으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문헌상 증산이나 증성이라는 명칭이 임진왜란을 경계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의미를 달리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부산의 대증현, 양산과 거제의 증산과 같이 이전에 기록된 명칭은 대부분 시루산 또는 시루산성과 같이 산의 형태를 보고 명명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자로 풀이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증산이나 증산성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의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증성, 서생포증성, 부산증성, 사천증성, 양산증산성 등은 임진, 정유 양란 때 축조한 왜성에 대한 별칭으로 증산이라 하고 있다. 증성 또는 증산성이 왜성의 형태를 보고 명칭한 것인지 자세하지 않지만 필자가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일본에서 성을 시로시로라고 혼독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왜인들이 왜성을 시로시로 또는 오시로おしろ라 부르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로시로를 시루로 명칭하는 과정에서 한자 ‘甗’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증성은 성성이라는 의미가 되며 마치 우리들이 흔히 역전앞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 왜성의 원류가 되는 일본 근대성곽의 시작이다. 일본 고유의 것으로 설명하는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전국시대 말 일본성은 산성에서 평산성으로 입지가 바뀌어 지고 석축, 해자, 토루, 천수각 등 성 내외구조와 형태, 규모에서 대변혁기를 맞이한다. 성내는 철폭 이용에 편리한 보병적 전투기능과 하늘에 맞는 오중첩탑의 종교기능건물 그리고 성주의 거관 등 복합된 특수구조와 기능이 요구되면서 화려하고 장대해 진다. 가장 먼저 축조된 노부나가의 아즈치성은 1576

년에 시작하여 1579년에 완공된다. 하비르가 가고시마에 도착한지 20년 후의 일이다. 현재 알려진 아즈치성의 조감도는 유럽지역 15세기-16세기 성곽들과 매우 닮고 있다. 철포, 화약을 비롯한 천주교 등 서양문물의 일본전입 과정에서 근대성곽도 예외는 아니었다. 왜성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 투고일 2018년 1월 5일 | 심사완료일 2018년 2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8일 ■

참고문헌

亂中雜錄
大東地志
東國輿地勝覽
東萊府誌
東槎錄
萬機要覽
扶桑錄
三國史記
宣祖實錄
修堂集
燃藜室記述
顯宗實錄

- 김종권, 『역안 삼국사기』 선진문화사. 1960.
김준환 편역 『또레도-마드리드』, 스페인. 2013.
나동욱, 『한국의 왜성의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2012.
동아대학교박물관, 『강서죽도성지』 고적조사보고서 제42책. 2006.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梁山勿禁黃山堰』 발굴조사보고서. 2012.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경남의 왜성지』, 1961.
城郭談說會, 『倭城の研究 I ~ V』, 1979~2002.
심봉근, 『한국 남해안의 왜성』, 文物研究 제4호. 2000.
_____, 『釜山浦와 釜山鎭城의 공간적 위치분석』, 文物研究 제25호. 2014.
倭城址研究會, 『倭城 I』, 1976年度調査報告. 1976.
우경화 번역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스페인. 2015.
이형재, 『한국 남해안의 왜성 축성술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 角山榮 『堺と南蠻貿易』, 『南蠻』堺市博物館. 2003
中島樂章 『大航海時代のなかの 信長・秀吉・家康』, 『大航海時代の日本美術』九州國立博物館. 桃山展 圖錄. 2017

Abstract

Reconsidering the terms of the Wae fortress and the Jeung fortress

Sim, Bong-Geun

The term Wae(Japanese) fortress generally indicates the fortresses constructed by the Japanese force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nvasion (1592~1597). Rarely, it was called either Jeung fortress or Jeung mountain fortress. In fact, the term Wae fortress means the Japanese fortress. In the case of Japan, the fortress built at the time usually called the fortresses in the age of civil wars or the modern fortresses. Recently, the author refuted the existing argument that the name of Busan was derived from the Jeung mountai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materials for proving the argument, the author found out the fact that the locations of the Jeung mountain and Jeung mountain fortress coincided with where most Japanese fortress located. Therefore, this essay analyzes the materials regarding the connection between Wae fortress and Jeung fortress. Then, it re-examines the generality of using the term Wae fortress and the meaning of Jeung fortress. Moreover, this essay also reviews the origins of Wae fortress and the modern Japanese fortres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this essay goes over the term Wae fortress. This term generally indicates the fortress constructed i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Japanese forces during periods of the Japanese invasion. According to the official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they distinguished the Wae fortresses from the Japanese fortresses located in Japan. As a result, it seems that the court of the Joseon dynasty defined the term Wae fortress as a fortress constructed in the Korean peninsula by the Japanese.

Second, it is interesting that the meaning of Jeung fortress or Jeung mountain became different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According to the records written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these terms were generally named after the cauldron-shaped of the mountain. Therefore, based on the its Chinese characters, the fortresses were called either Jeung fortress or Jeung mountain fortress.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se terms were used as another name for the Wae fortresses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invasion. The word Jeung was originally from a Japanese word for a castle(shiro). Therefore, the Korean people started to use the word shiru(steamer), which had a similar pronunciation with the Japanese word shiro.

Last, this essay also examines the beginning of the modern Japanese fortress that had been regarded as an origin of the Wae fortress. Many scholars also argue that the modern Japanese fortress represented the Japan's unique style. However, according to the aerial view of the Azuchi fortress—the first modern Japanese fortress, the styles of their construction were very similar to that of the European in the 15-16th centuries. As a result, the modern Japanese fortresses were influenced by an inflow of the Western culture into the Japan at the time. For this reason, the Wae fortresses constructed by the Japanese also has similar characteristics which the modern Japanese fortresses had.

Key Words : Wae fortress, Jeung mountain fortress, Daejeung prefecture, modern Japanese fortress, cannon and rifle, matchlock

